

급성 신우신염에서 발생한 자발성 신 주위 혈종 1예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순애 · 신성준 · 탁우택 · 김경수 · 이정상

A Case of Spontaneous Perinephric Hematoma in a Patient with Acute Pyelonephritis

Soon Ae Kim, Sung Joon Shin, Woo-Taek Tak, Kyung Soo Kim and Jung Sang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신장의 비외상성 출혈에 의한 신주위 혈종은 1910년대에 Coenen에 의해 처음으로 Wunderlich 증후군으로 명명되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드문 질환이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종양이 제일 흔하고, 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나 급성 신우신염에 동반된 예는 매우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급성 신우신염에서 발생한 신주위 혈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45세 여자 환자로 3일 전부터 시작된 고열과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최근 외상의 과거력은 없었으며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으로 항바이러스제 (clevidine)를 복용 중이었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혈압은 134/76 mmHg, 맥박 78 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 37.8°C 이었고 급성 병색을 보이고 있었다. 결막은 다소 창백하였으며 좌측 늑척추각 압통이 있었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9540/ μL (호중구 86.4%), 혈색소 11 g/dL, 혈소판 88000/ μL 이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총 단백은 7.2 g/dL, 알부민 3.6 g/dL, AST 31 IU/L, ALT 23 IU/L, BUN 17.6 mg/dL, creatinine 1.0 mg/dL,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는 negative이었다. 혈액응고검사상 PT INR 1.34, PT 57.6%, aPTT 45.2초로 연장된 소견을 보였다. 소변 검사에서는 비중 1.025, PH 5.5, 질산염 (-), 단백 질 (2+), 현미경 검사상 고 배율에서 백혈구 10-29개, 적혈구 1-4개가 관찰되었다. 소변 배양 검사에서 Klebsiella pneumonia가 104-105 CFU/ml로 동정되었다.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하고 3세대 cephalosporin을 투여하였다. 제 2병 일째 옆구리 통증이 악화되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며 왼쪽 신장 주위에 혈종이 발견되었다.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하였고 종양이나 혈관기형 등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열과 옆구리 통증이 있어 제 10병 일째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다음날부터 6일 간 50 mL 이상의 혈액이 배액되었고 배액술을 시행한 10일 후부터 배액량이 감소하여 총 2주간 455 mL 배액되었다. 배액된 혈액 검체에서 세균, 곰팡이, 결핵균 등의 균은 동정되지 않았다. 카테터 삽입 14일 후 더 이상의 배액이 없고 초음파 검사에서 혈종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하여 카테터는 제거하였다. 이 후 환자는 전신 상태 호전과 추적 검사한 CT 에서 혈종이 거의 소실되어 퇴원하여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Key Words : 신주위 혈종, 급성 신우신염, 경피적 배액술
Perinephric hematoma, Acute pyelonephritis, Drainage